

# 캐나다화 예작가 협회(加華作協)

## 단편소설의 특징과 의의\*

—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김 혜준\*\*

<目 次>

1. 캐나다 화인의 이주 개황
2.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발전 개황
3. 加華作協 단편소설의 다양한 면모와 특징
4.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 1. 캐나다 화인의 이주 개황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반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국내의 반발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비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외국인 기술인재 근로허가 신속처리 프로그램인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의 시행,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위한 3개년 계획의 발표

\* 이 논문은 2016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중문과 교수, [dodami@pusan.ac.kr](mailto:dodami@pusan.ac.kr)

등 이민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리하여 심지어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캐나다 국적으로 변경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 캐나다의 이민 정책 역시 수시로 바뀌어왔고, 캐나다 주류사회의 이민자에 대한 태도 또한 항상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캐나다의 화인 이민자에 대한 정책과 태도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화인의 역사적 이주 상황 및 그 문화적 현황은 캐나다 화인학문 문학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sup>1)</sup>

캐나다에 화인이 처음으로 이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30년 전이다. 영국의 존 매어즈(John Meares) 선장의 기록에 따르면, 1788년과 1789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약 50명과 약 70명의 홍콩 및 마카오 출신 화인이 그의 선단에 승선하여 캐나다 서해안 밴쿠버 섬의 누트카 수로(Nootka Sound) 지역에 도착했다. 이들은 소형 선박 건조와 소규모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공과 철공 등 주로 장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처음부터 북미 북서부 지역에 이주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그 중 일부는 현지 여성과 가정을 꾸리고 후손을 남기기도 했다.<sup>2)</sup>

화인의 캐나다 이주는 그로부터 약 70년 뒤에 더욱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1857년 하반기에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프레이저 강 유역에서 금이 발견되었다. 이에 이듬해인 1858년 6월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화인 노동자들이 먼저 이동해왔고, 1860년부터는 홍콩과 마카오 등지에서도 수많은 화인 노동자들이 이주하여 사금 채취, 석탄 채굴 및 각종 육체노동에 종사했다. 사금 채취가 정점을 찍은 뒤인 1865년 이후에는 일자리 부족 등의 이유로 화인 노동자 배척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1881년 몬트리올—밴쿠버 사이에 캐나다 횡단 철도 부설이 시작되

1) 이하 캐나다 화인의 이주 변천에 관련된 서술은 주로 김두섭(1998), 吳金平 (2002), 王奕軒(2014), 趙慶慶(2014)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2) 이상 John Meares(1790), 2-3쪽 및 Appendix No. I, No. X를 참고했다. 다만 이들 화인이 후손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趙慶慶(2014: 20)을 참고했으며, 더욱 상세한 것은 Anthony B. Chan, *Gold Mountain: The Chinese in the New World*, Vancouver: New Star Books, 1983을 보기 바란다.

었다. 다시 15,000-17,000명에 달하는 화인 노동자가 유입되었으며, 이 중 약 4,000명이 공사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1885년 캐나다 횡단 철도가 준공되자 캐나다 정부는 화인 노동자의 입국을 규제하기 위해 1886년부터 일종의 인두세 격인 1인당 50 CAD(캐나다 달러)의 이민입국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후 입국세는 계속 증액되어 1901년에는 100 CAD, 1903년에는 무려 500 CAD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인 노동자의 이주 숫자가 줄지 않자 마침내 1923년에 속칭 ‘중국인 이민 배제법’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이민법(the Chinese Immigration Act, 1923)을 새로 제정하고, 외교관·상인·유학생·캐나다 출생 화인 및 캐나다 출국 2년 미만의 재입국 화인을 제외한 모든 화인의 입국을 불허하였다. 요컨대 20세기 중반 이전의 초기 화인 이주자들은 캐나다 서부 지역의 광산 개발과 철도 건설 등 캐나다에 크게 기여하였지만 캐나다 주류 사회로부터 각종 차별·편견·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심지어 당시 대부분의 화인 노동자가 남성이었던 데다가 가족의 입국마저 어려웠기 때문에 남녀 인구의 성비가 극단적으로 불균형을 이루었다. 이리하여 한 집에 남성만 수십 명이 공동 거주하는 경우가 흔할 정도였다.<sup>3)</sup>

1947년 캐나다는 화인의 2차 대전 참전이라든가 UN의 1946년 인권 장전 초안 발표 등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따라 기존의 ‘중국인 이민 배제법’을 폐지하였다. 이어서 경제성장에 따른 노동인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1967년에는 이민법을 개정하여 인종차별을 철폐하고 접수 제를 실시하는 등 상대적으로 전보다 관대한 새로운 이민정책을 펼쳤다. 이에 따라 1950년대부터 화인 이주가 재개되면서 홍콩·타이완·동남아의 화인들이 대거 유입되기 시작했다.<sup>4)</sup> 특히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

3) 梁麗芳(2011: 53)에 따르면 캐나다 화인의 남녀 비율은 1887년 70:1, 1921년 25:1, 1941년 10:1이었다고 한다.

4) 예컨대 1956년에서 1965년 사이 22,000명의 화인이 이주했는데, 그 중 홍콩 출신이 66%, 타이완 출신 21%, 기타 아시아지역 출신이 3.2%였다고 한다. 李東海, 『加拿大華僑史』(台北: 加拿大自由出版社, 1967), 352頁. 梁麗芳(2010: 7)에서 재인용.

시기와 1984-1997년의 홍콩반환에 관한 중영연합성명 발표에서 홍콩반환까지 10여 년간 홍콩 출신 이주자들이 급증하였다. 초기 화인 이주자들이 대부분 육체 노동자였던 것과는 달리, 이 시기의 화인 이주자들은 도시 출신으로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재산을 갖추고 있었으며, 전문직 종사자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1970년 캐나다와 중화인민공화국이 국교를 수립하면서 1974년부터는 중국 대륙(이하 '대륙'으로 약칭) 출신 이주자들의 이주도 재개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대륙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하자 유학생을 필두로 하여 대륙 출신 화인 이주자들의 숫자는 갈수록 늘어났다. 그러다가 1998년 이후에는 대륙 출신 이주자들이 홍콩 등 타 지역 출신 이주자들을 추월하여 화인 이주자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늘날에는 초기 화인 및 20세기 후반 홍콩·타이완·동남아 출신 화인과 구분하여 이런 대륙 출신 이주자들을 통상적으로 '신이민'이라고 일컬을 정도가 되었다.

다음 표를 보면 이상에서 설명한 20세기 후반 출신지별 화인 이민자의 변동 추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화인 이민자의 출생지 통계(2016년 셈터스, 25% 샘플 자료)<sup>5)</sup>

출생지	1981 이전	1981-1990	1991-2000	2001-2005	2006-2010	2011-2016	합계
중국 대륙	56,670	50,885	148,960	140,605	123,125	129,015	649,260
홍콩	47,840	56,275	88,850	6,120	4,885	4,975	208,935
마카오	1,480	1,500	2,240	185	185	155	5,750
타이완	4,785	6,810	31,535	7,940	8,395	4,310	63,770

<표 1>

5) Statistics Canada, "Immigrant population by place of birth, period of immigration, 2016 Census - 25% Sample data." 이하 캐나다 인구와 관련된 각종 통계는 캐나다 연방통계청(홈페이지 <https://www.statcan.gc.ca>)의 자료를 사용했다.

캐나다의 2016년 인구센서스에 따르면 캐나다 인구는 35,151,728명이다. 이 중에서 문화·혈통 면에서 본인이 화인에 속한다고 단독 응답한 사람의 숫자는 1,463,24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6%에 달한다. 여기에 만일 다른 종족 집단과 중첩된다고 복수 응답한 사람 342,465명까지 포함한다면, 화인의 숫자는 1,805,710명으로 늘어나서 전체 인구의 약 5.14%에 달하게 된다.<sup>6)</sup> 이들을 출생지 면에서 본다면, 대륙 출생 52.3% (752,650명), 홍콩 출생 15.0%(215,750명), 마카오 출생 0.4%(5,985명), 타이완 출생 4.7%(68,385명), 캐나다 및 기타 지역 출생 27.6%이다.<sup>7)</sup> 언어 면에서 본다면 가정에서 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총 1,290,100명에 달하며, 그 중에서 國語/普通話/北方方言(Mandarin) 641,100명(48.53%), 粵語 594,705명(45.02%), 閩語 28,625명(2.17%), 吳語 11,195명(0.85%), 客家語 8,555명(0.65%), 기타 36,740명(2.78%)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sup>8)</sup>

이상에서 살펴 본 바 화인의 전체 규모, 시기별 유입 추세, 출신지의 구성 등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내용과 스타일은 물론이고 발표 지면과 독자 확보 등 많은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 화인은 출신지와 사용 언어 및 이주시기에 따라서 법적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경제적 신분 면에서 상당히 다양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요소들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에 상당히 중중적이고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현재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행위 주체는 일단 100만 명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대륙 등지의 화

6) Statistics Canada, “Ethnic Origin, both sexes, age (total), Canada, 2016 Census - 25% Sample data.” 캐나다는 5년 주기로 인구센서스를 실시하는데, 2016년 센서스의 종족 분류에서 화인은 Chinese와 Taiwanese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어 있다.

7) Statistics Canada, “Citizenship (5), Place of Birth (272), 2016 Census - 25% Sample Data.” 기타 지역에서 출생한 화인의 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어 않아서 부득이 캐나다 출생 화인과 합산했다. 한편 이 통계의 합계 수치와 앞의 “화인 이민자의 출생지 통계”의 합계 수치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는 양쪽이 각각 25% 샘플에 근거한 추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8) Statistics Canada, “Language Spoken at Home (263), Single and Multiple Responses of Language Spoken at Home (3), Mother Tongue (269).”

어 사용자를 고려해본다면 그 잠재적인 독자는 더욱 엄청난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발전 개황

초기 화인은 대체로 육체노동자들이었기 때문에 문학 활동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초기 화인의 문학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sup>9)</sup> 현재까지 밝혀진 바를 근거로 해볼 때, 최초의 캐나다 화인화문문학 작품은 소위 ‘돼지우리’(豬仔屋)라고 불린 이민국의 건물 벽에 남긴 19-20세기 초 사이의 ‘벽시’(壁詩)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908년 밴쿠버 섬 빅토리아 시에 이민국이 설치되었고, 1923년 화인 이민이 전면 금지될 때까지 모든 화인 입국자는 이곳에서 짙게는 여러 날에서 길게는 여러 달 동안 입국 허가를 기다려야 했다. 그런데 1977년 이 건물을 철거할 때 빅토리아대학의 데이비드 라이(David Chuenyan Lai 黎全恩) 교수가 미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던 벽 한 곳에서 화인의 시문 일부를 채록한 바 있다. 또 이보다 앞서서 19세기 초 밴쿠버 시에 설치되었던 이민국의 건물에서도 후일 유사한 기록물이 발견되었다. 이런 벽시들은 초기 화인의 여러 가지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즉, (1) 생계 압박 및 혈연 네트워크에 따른 이민 상황 (2) 캐나다 이민 과정에서의 각종 고난 (3) 캐나다 도착 후 중국 감옥보다 못한 ‘돼지우리’에서의 비참한 대우 등이 그것이다.<sup>10)</sup>

9)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초기 화인의 후세대 및 그들의 영향을 받은 동향의 후속 신규 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문화적 소양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캐나다 화인의 수는 1931년에는 46,519명이었고 1941년에는 34,627명이었는데, 그 무렵 캐나다의 화문 신문 판매 부수가 수천 부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梁麗芳(2010), 梁麗芳(2011) 참고.

10) 이상 벽시에 관한 서술과 평가는 주로 趙慶慶(2014)을 참고했다. Paul Yee, *Saltwater City: An Illustrated History of the Chinese in Vancouver, Vancouver: Douglas and McIntyre, 1988*, 52-53, 55쪽에 좀 더 자세한 설

초기 화인은 여가활용·친목도모·상호부조·정보교환 등의 필요에 의해 혈연이나 동향 관계를 중심으로 종친회·향우회 등 각종 단체를 설립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발행한 간행물에는 단체의 활동 상황 및 재무 사항에 관련된 기록 외에도 회원들의 문학성 글이 들어있기도 했다. 또 이와는 별도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사이에 다수의 저명인사들이 여러 차례 캐나다를 방문하고 『遊加拿大記』(康有爲, 1899), 『新大陸遊記』(梁啓超, 1903) 등 관련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비교적 모양을 갖춘 문학 활동이 전개된 것은 『日新報』(1903), 『大漢公報』(1907), 『新民國報』(1909) 등의 화문 신문이라든가 『禹聲月刊』(1936) 등의 화문 잡지가 발행된 이후였다. 이들 간행물에는 粵劇班本(粵曲唱本)·粵謳(廣東民歌)·白話劇·舊體詩·坊間小說·散文·歷史典故 등 주로 구문학 형식의 작품이 게재되었는데, 내용 면에서는 캐나다 생활에 대한 감수와 반응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sup>11)</sup>

2차 대전 이후 홍콩·타이완·동남아 등지에서 새로운 화인 이민자들이 유입되고, 이에 따라 문학 창작 상황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점은 이전의 작품들이 주로 구문학에 속하는 것이었다면 20세기 중반 이후에는 주로 신문학에 속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黃寬達의 경우가 그러했다. 과거 그는 주로 구시를 발표했지만 『大漢公報』에 1953년 11월 3일 「重逢」이라는 신시를 발표한 후 이를 다시 소설로 개작하여 12월 5일부터 같은 신문에 연재하기 시작했다.<sup>12)</sup> 또 이 시기에 새로 창간된 『僑聲日報』(1954)는 기존의 『大漢公報』, 『新民國報』와 더불어 1990년대까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전

---

명이 있다. 그 외 Karen Cho, "In the Shadow of Gold Mountain", [https://www.onf.ca/film/in\\_the\\_shadow\\_of\\_gold\\_mountain](https://www.onf.ca/film/in_the_shadow_of_gold_mountain)에도 관련 영상이 있다.

11) 이상 신문·잡지를 중심으로 한 초기 화인의 문학 활동에 관한 서술은 梁麗芳(2010), 梁麗芳(2011) 및 陳浩泉(2010)을 참고했다.

12) 梁麗芳(2013)은 이 소설이 학업과 인생에 대한 젊은 화인의 방황을 진실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자신이 화인한 벌위 내에서는 최초의 캐나다 화문소설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李未醉(2005: 17)는 1957년 홍콩의 『文藝新潮』에 발표된 冷凝의 『蒙特利爾之冬』이 최초의 작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개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요컨대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이 비교적 규모 있게 이루어진 것은 이 무렵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새로운 이민 정책 실시 이후에는 화인의 규모, 문화적 소양, 작품 창작의 의식성, 작가 활동의 집단성, 작품의 공개적인 발표, 독자들의 감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 때문에 梁麗芳(2013)은 1960-70년대에 홍콩과 타이완에서 이주한 화인 작가들이 캐나다 화문소설의 첫 번째 성황을 이끌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이 시기 화문소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이 다국적이면서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출발지보다 이주지가 중시되었다. (2) 삶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세대·문화·종족·애정 등등의 면에서 새로운 갈등이 부각되었다. (3) 출발지 문화와 이주지 문화 사이의 선택·절충·융합이 시도되었다. (4) 인물의 현실적·정신적 여정 및 탐구라는 주제가 깊이 있게 다루어졌다.

199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는 기존 작가들의 활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륙 출신 작가들이 새롭게 가세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은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제법 성황을 이루게 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표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우선 작가의 수가 대거 늘어났다. 그들 중에는 洛夫·痖弦·葉嘉瑩·胡菊人·梁錫華·亦舒·阿濃·潘銘燊·陳浩泉 등 이주 전부터 이미 잘 알려진 작가들도 있고, 이전부터 창작을 해왔거나 뒤늦게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盧因·馮湘湘·梁麗芳·東方白·葛逸凡·朱小燕·劉慧琴·曾曉文·孫博·余曦·笑言·張翎·汪文勤·宇秀·曹小莉 등 이주 후에 (더 육) 큰 성취를 거둔 작가들도 있다. 또 李彥·林婷婷·趙廉 등 영문 창작을 겸하는 작가들도 있다. 陳浩泉(2010)은 비교적 활동적인 작가들을 홍콩 출신 70명, 타이완 출신 11명, 대륙 출신 41명, 기타 지역 출신 3명 등 출신지별로 구분하여 총 125명을 제시한 바 있다. 물론 趙慶慶(2011), 梁麗芳(2013), 劉紅林(2014) 등에서 산발적으로 거론하고 있는 작가들까지 포함한다면 이 시기 캐나다 화문작가의 수는 더욱 많아진다.

다음으로 작품의 출판이 대폭 증가했다. 중국 권에서 큰 주목을 받아 한글 번역본까지 나온 張翎의 『金山』(2009)<sup>13)</sup>을 비롯해서 위에서 거론한 작가들의 수많은 개별 작품집은 일일이 다 거론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거기다가 『楓華文集』(1999), 『白雪紅楓』(2003), 『西方月亮』(2004), 『叛逆玫瑰』(2004), 『楓情萬種』(2005), 『楓雪篇』(2006), 『旋轉的硬幣』(2007), 『楓情』(2007), 『楓雨同路』(2009), 『漂鳥』(2009), 『芳草萋萋』(2012) 등 각종 선집이 잇달아 출판되었다. 또 예컨대 『香港文學』(2004-7, 2009-12), 『文綜』(2010-3, 2010-6)이 각각 두 차례에 걸쳐 특집을 게재하는 등 다수의 문학 간행물이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을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교재용으로 『當代加拿大華裔作家作品賞析』(2017)가 출판되기도 했다.

더 나아가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에 대한 연구 또한 활성화되고 있다. 「華文文學」(汕頭大學)은 “加華文學專號”(2006-4)와 “加華文學專輯”(2007-5)을 발간했고, 「世界華文文學論壇」(江蘇省社會科學院) 역시 세 번에 걸쳐 “加華文學研究專輯”(2010-2·3·4)을 발간했다. 이는 CNKI 검색에서도 확인된다. 단순히 ‘加拿大華文文學’을 키워드로 넣어보면 200 건 이상이 검색되는데, 그 중 상관도가 낮은 항목을 제외한다 치더라도 최소한 10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 ‘張翎’을 키워드로 입력해보면 놀랍게도 석박사 논문만 64편이 검색될 정도이다.

### 3. 加華作協 단편소설의 다양한 면모와 특징

#### 1) 창작의 어려움과 작품의 다양성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발전은 1980년대 이래 속속 창립된 문학 단체들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비교적 많이 알려진 것만 해도 10여

13) 장령 저, 박명애 역, 『골드마운틴』(서울: 금토, 2010).

개에 이른다. 예를 들면, 작가로만 구성된 단체로는 加拿大華裔作家協會(1987), 加拿大華文作家協會(1991), 多倫多華人作家協會(1993), 加拿大中國筆會(1995), 加拿大華人筆會(2000), 加拿大華語詩人協會(2002), 大華筆會(2005), 渥太華華人寫作者協會(2007), 加拿大華人文學學會(2009) 등이 있고, 다른 분야와 공동으로 구성된 단체로는 三維藝術家協會(2000), 漂木藝術家協會(2006), 亞裔作家工作室(Asian Canadian Writers' Workshop, 1960년대 말)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加拿大華裔作家協會(加華作協)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加華作協의 전체 회원 수는 현재 약 120명(1999년 57명, 2003년 72명)이다. 지금까지 출판한 작품집으로는 加華作家文集 4종, 加華作家系列叢書 9종이 있고, 그 밖에 단속적으로 발행된 정기/부정기 간행물로는 『加華文學』, 『加華作家』, 『楓雪篇』 專欄 등이 있다.

加華作協의 각종 작품선에 실린 단편소설은 총 53편(작가 수 30명)이다.<sup>14)</sup> 加華作協 창립 30주년이라는 역사, 그 동안의 활발한 활동, 창립 이래 계속 증가하고 있는 회원 수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숫자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화인 작가의 열악한 창작 여건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 숫자가 결코 적지 않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는 기본적으로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전업 작가가 아니다. 또 대개는 이주자라는 신분에서 비롯되는 생활상의 압박 때문에 비교적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창작이 매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 작품의 발표 지면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다.<sup>15)</sup> 그뿐만 아니라 캐나다라는 광대한 지역에 흩어져서 각기

14) 이 숫자는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출판하거나 『香港文學』·『加拿大華文作家作品展』(2004·7)을 비롯해서 외부 간행물에 게재된 것을 제외한 것이다.

15) 『胖子和我(下)』(曹小莉) 말미에서 화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즘 시절에 누가 내게 원고료를 주고 누가 이런 글을 읽겠니? 열 장이나 썼지만 서랍 속에서 10여 년이나 묵혔어.” 그리고 작가는 다시 작품 뒤에 “1999년 초고, 2009년 컴퓨터 입력, 드디어 헛빛을 보다.”라고 추가하고 있다. 또 劉慧琴(2006: 11)에서도 이렇게 토로하고 있다. “해외에서 문학 사업의 발전을 주진하는 것은 상상보다 훨씬 지난하다. 출판은 큰 문제다. 원고료가 없는 것

다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작품선으로 펴낸다는 것은 더욱 더 어려운 일이다.<sup>16)</sup>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본다면 사실 加華作協 작품선의 단편소설 편수가 적다고만은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절대적인 작품 편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작품선에 게재된 작품들은 그 편수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소재와 스타일을 보여준다. 먼저 소재 면에서 보자면 화인 이민자의 생활 경험을 다룬 작품이 대단히 많으면서도 그 외에 제법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冬元』(陳麗芬), 『瓶』(張翎), 『沉茶』(張翎), 『貓仔』(阿濃) 등 대륙이나 홍콩의 사회 상황을 다루면서 일반적인 중국 작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도 있고, 『永久的秘密』(阿濃), 『美麗的錯誤』(林婷婷) 등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과 무관하게 인생의 의의나 가치에 대해 숙고하거나 인간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감수를 표현한 작품도 있다. 다음으로 기법 면에서 보자면, 사실주의적 서사가 대부분인 가운데 『地久天長』(李彥), 『爐邊傳奇』(盧因), 『羅醫生的牀』(笑言) 등 약간의 모더니즘적 기법을 응용한 작품도 있다. 또 전통적인 소설 스타일 외에도 『入門』(慧卿)과 같이 극본 형태를 활용한 작품, 『一個士兵之死』(劉慧琴), 『胖子和我』(曹小莉)과 같이 보고문학이나 수필 스타일을 활용한 작품, 『當宇秀是露絲瑪麗的時候』(字秀)와 같이 자서전 스타일의 작품도 있다. 그 외에 『胖子和我』(曹小莉) 등 시를 삽입한 작품도 있고, 『溫哥華的私房菜』(也斯)<sup>17)</sup>

---

은 말할 나위도 없고 발표 지면을 찾는 것조차 극히 어렵다. … 아주 오랜 기간 해외로 이주한 작가가 작품을 발표하려면 원거주지로 원고를 보내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다. 캐나다 화인 작가의 창작을 더욱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마련하는 조처, 즉 출판 경비를 작가들이 분담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 16) 이런 점은 각 작품선에 게재된 역은이 陳浩泉의 「編後記」 또는 「編者前言」에서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다.
- 17) 이 작품에서 작가는 傳奇나 章回小說의 형식을 응용하면서, 주인공의 이름에서부터 소설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군데군데 「薛平貴」나 「王昭君」 등의 이야기를 인용·쾌러디할 뿐만 아니라, 문언문·광동말·표준 중국어를 혼용한 1940-1960년대 홍콩 특유의 짠지디 문장(三及第文字)을 흥내 내기도 한다.

처럼 중국 전통문학을 응용 내지 패러디한 작품도 있다. 물론 이런 외형적인 소재, 기법, 스타일의 이면에 내재되어 있는 각 작가들의 세계관, 인생관, 문학관은 그보다 훨씬 더 다채롭다.

이들 작품이 이와 같이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작가의 출신지가 대륙·타이완·홍콩 및 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등 제각각이고, 이들의 창작 경력 및 생활 이력 역시 다양한 것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加華作協의 다원적이고 포용적인 분위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 점은 加華作協의 회원 구성에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화인화문 작가들뿐만 아니라 Wayson Choy(崔維新) 등 화인영문 작가라든가 심지어 Jan Walls(王健)와 같은 비화인 캐나다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작품의 선정 면에서도 드러난다. Wayson Choy의 “The Jade Peony”가 『玉牡丹』(胡意梅譯)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에 일시적으로 체류했던 也斯의 『溫哥華의私房菜』나 캐나다 이민 후 출발지인 홍콩으로 되돌아간 顏純鉤의 『自由落體事件』 등도 실려 있다. 만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본다면, 이는 또한 캐나다의 소수종족에 대한 포용적인 정책 및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작품에서 보이는 “캐나다라는 이 다문화적 대가정”(汪文勤, 『姓甚名誰』)이라는 구절이나, “고요한 맑은 물처럼 평온하게 발전해나가는 밴쿠버 시 … 오래 살다보니 자연스레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세상과 다투지 않게 되었다.”(曹小莉, 『胖子和我』)와 같은 표현이 빈말은 아닌 것이다.

## 2) 이민 경험의 표출 (1)

加華作協의 작가는 대다수가 이민 1세대이다. 이 때문에 이주지에 도착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투영한 작품이 대단히 많다. 일단 무엇보다도 작품의 배경이 대부분 캐나다이고,<sup>18)</sup> 작품의 소재 역

18) 대륙(『瓶』, 『沉茶』, 『冬元』), 홍콩(『貓仔』, 『父女情』, 『自由落體事件』), 또는

시 대체로 이민자의 생활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대개 소설의 앞부분에서 캐나다의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그 공간적 배경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작품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장소가 어딘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작용하는 것 같다. 첫째, 작가들이 창작 과정에서 자신의 작품이 캐나다 화인화문소설임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작가들은 작품의 독자를 캐나다 화인 내지 세계 각지의 화인에 한정하지 않고 대륙·타이완·홍콩의 중국인으로 확대해서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돋기 위한 배려이자, 독자들의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화인화문소설이라는 작품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인 셈이다.

이런 이민자 생활을 다룬 작품에는 당연히 화인화문소설이 보여주는 공통적인 면모가 드러난다. 이주지에 도착해서 겪게 되는 낯섦과 설렘, 난감함과 안도, 경제적 불안정과 안정, 사회적 지위 하락과 확보, 정착의 실패와 성공, 언어·문화적 부적응과 적응, 주류사회로부터의 소외와 화인사회로부터의 도움, 이주지에 대한 불만과 만족, 이주지와 출발지에 대한 복잡한 반응... 등등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 예컨대 『嚴冬』(金依)과 『自毀』(張初)에서는 두 작품 모두 이주 후에 부인은 비교적 수월하게 슈퍼에 취업하여 생계를 이끌게 되지만 남편은 실업 또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처해있다. 이 때문에 남편은 사회적 신분 하락과 가정 내 지위 변화에 분노하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을 넘어서 성적 학대 및 가정 폭력까지 자행함으로써 결국 자기 파멸과 가정 파탄을 초래하고 만다. 『尋夢園之軍墾農場』(陳麗芬)에서는 중국에서의 부유한 삶을 뒤로하고 기업 이민을 온 여성 주인공이 가져온 재산을 다 날리고 남편마저 암으로 사망하고 난 다음, 이전에 문화대혁명도 겪어보았다고 자위하면서 서글프고도 강인한 각오를 다진다. 『當宇秀是露絲瑪麗的時候』(字秀)

---

장소가 불분명(『永久的路密』, 『遺孀』, 『老兵』)한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80% 이상이 캐나다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에서는 화인 이주자인 화자가 화문 작가이자 가게 점원으로 살아가면서 두 개의 이름·신분·정체성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加華作協의 단편소설에서 한 가지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秦香蓮”之演出』(冬青), 『再生花』(冬青), 『溫哥華的月亮』(陳浩泉), 『鴉』(陳華英), 『入門』(慧卿) 등에서 보듯이 ‘기러기 가족’(太空人家族) 현상 및 그로부터 야기되는 가정의 갈등, 봉괴 및 여성의 자립 문제를 많이 다룬다는 것이다. ‘기러기 가족’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특히 홍콩 출신 이주자가 많은 캐나다 지역에서 비교적 현저했다. 이는 홍콩 출신 청장년 남성 화인들이 대거 홍콩으로 역류한 것과 관계가 있다. 캐나다에서는 부의 축적이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제한적이었다. 반면에 홍콩은 1997년 반환 이후에도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 인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일어났다. 이리하여 수많은 역이주가 일어났고 수많은 기러기 가족이 발생했던 것이다.<sup>19)</sup> 이런 점에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이 어쩌면 ‘기러기 가족’ 현상이 가진 복합적인 의미를 더욱 심충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상기한 작품들은 ‘기러기 가족’의 결과로 나타난 가정의 봉괴 문제에 대해서 비교적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다. 대체로 역이주를 한 남편에게 부인 아닌 딴 여자가 생겼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도 그러하겠지만 작품의 행간을 꼼꼼히 살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이주 후에 생겨난 부부의 육체적 감정적 분리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출발지와 이주지의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가족 구성원의 관념과 행위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溫哥華的私房菜』(也斯)는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19) 화인이나 한인의 ‘기러기 가족’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입 확보라는 경제적 이유와 자녀 교육이라는 문화적 이유 때문일 것이다. 화인(특히 홍콩출신 화인)의 경우에는 이주지에서 겪게 되는 각종 어려움 외에도 출발지의 사회적 안정·경제적 성장 및 이에 따른 기회 증가, 캐나다의 이중국적제 및 이민자에 대한 의무 거주 기간의 느슨함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기러기 가족’ 현상과 홍콩 출신 화인의 역이주에 관한 일부 내용은 윤영도(2014)를 참고했다.

아마도 남편의 역이주를 위해 위장 이혼한 것으로 보이는 부부 사이에서 전개되는 미묘한 변화와 갈등이 사실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제도와 관념의 변화에 의한 것임을 —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출발지와 이주지와의 사회 문화적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3) 이민 경험의 표출 (2)

加華作協의 단편소설들을 잘 살펴보면 화인학문문학에서 비교적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면모 외에도 캐나다 화인학문문학 만의 어떤 특별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캐나다는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화인들이 큰 좌절 없이 차분하게 적응해나가고 있으며, 이리하여 마침내 법률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진정한 캐나다인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劉慧琴의 『楓迴路轉』(2003)와 『一個士兵之死』(2009)라는 두 작품이 보여주는 커다란 차이는 분명히 주목할 만하다. 전자가 화인 이주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내세워 이주지에서의 부적응과 출발지에 대한 귀속감을 극명하게 대비했다면, 후자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백인계 캐나다인의 전사에 대한 애도를 통해 이주지인 캐나다를 새로운 조국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이를 劉慧琴의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한다면,<sup>20)</sup> 어떤 작가들은 비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 캐나다 중소 도시의 따스한 일상을 묘사한 『親情』(葛逸凡), 이민자와 유학생으로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젊은 부부의 이야기인 『馳鼠爲媒』(陳華英), 이주 후 혼인으로 맺어진 3대에 걸친 8명의 두 가족이 순

20) 劉慧琴(2006: 11-13)은 일찍이 “나는 화인이란 별주에서 벗어나 제재의 화장을 시도하면서, 벤쿠버라는 이 도시의 한 구석에 캐나다 원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被遺忘的角落』를 쓰기도 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롭게 살아나가는 『彼岸的時光』(林楠), 출신지와 국적 및 종족이 각기 다른 화인 주인과 셋집 사람들이 빚어내는 애환을 궁정적으로 묘사한 『賣車大王愛德華史密特先生』(曹小莉) 등이 바로 그렇다.

그런데 이주자의 삶에 대한 캐나다 화인화문소설의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는 크게 두 가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캐나다 전체 화인 집단이 캐나다인과의 일체성 또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되는 점과 관계있는 것 같다. 물론 역으로 보면 이것은 캐나다의 소수종족에 대한 다문화주의 정책 및 사회 전체의 관용적 분위기와도 관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태도의 차이는 전체 화인 집단의 상황과 불가분한 관계가 있으면서 동시에 작가 개인의 경력 및 경험과도 상당한 정도로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즉, 출발지와 이주지 사이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곳에서 출발한 작가라든가 또는 거주 기간이 오래된 작가의 작품일수록 이주지인 캐나다에 대한 기대와 적용을 표출하고 있거나 진정한 캐나다인으로서의 애정과 권리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상세한 검토가 필요할 듯하다.<sup>21)</sup>

#### 4) 21세기형 초국가적 이주자 모습의 발현

이 점과 관련해서 캐나다 화인화문소설에는 또 한 가지 특별한 현상이 있다. 과거에는 이주자들이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도착지에서 그대로 사용하면서 원거주민에게 그것을 이식하려 하거나, 반대로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기본적으로 포기하면서 도착지 원거주민의 그것을 학습하고 그것에 동화되려 하거나, 또는 도착지에서 마치 고립된 섬처럼 존재하면

21) 梁麗芳(2013: 79-80) 역시 “[1960, 70년대의] 이들 소설은 대다수가 캐나다를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는데, 이는 그 뒤 두 번째 물결인 신이민 소설 속의 인물들이 출발지와 복잡하게 얹혀있는 것과는 달랐다. … [앞의] 이들 작가들은 생활환경이 비교적 국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설에서 인물이 이국에 도착한 후 갖는 이질감과 문화적 충격을 묘사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서 출발지 언어와 문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주자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근거한 정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일종의 움직이는 정체성을 갖추게 되면서 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태도와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게 되었다. 캐나다 화인화문소설에는 바로 이런 점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세히 말해보자.

20세기 중반 이래, 특히 1980년대 이래 전 지구적인 경제 체제 하에서 노동의 수시 이동, 교통의 발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등이 결합하여 초국가적 이주자들이 양적으로 더욱 증가되고, 공간적으로 더욱 확대되고, 시간적으로 더욱 잣아지고, 현상적으로 더욱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종래의 이주자들이 주로 식민·난민·이민·강제 이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영원히 출발지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고 한다면, 이 새로운 이주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및 때로는 경유지 포함)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양쪽의 자원을 모두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의 초국가적 이주자들은 국적을 일종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21세기 형 유목민적인 정서와 사고를 가지게 되었다.<sup>22)</sup> 특히 그 중에서도 화인의 경우에는 대륙·타이완·홍콩 및 기존 화인 사회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 속에서 최근의 ‘중국 굴기’(中國崛起)까지 추가됨으로써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加華作協의 단편소설에 바로 이런 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他是我弟弟, 他不是我弟弟』(陳浩泉)가 그 중 하나다. 이 작품에는 홍콩 출신 화인 부자와 타이완 출신 화인 모자가 캐나다에서 결합하여 새로 가정을 이룬다. 그런데 재혼한 부모는 사업상 대륙·타이완·홍콩·밴쿠버를 수시로 오가고, 이복형제는 밴쿠버에서 여러 종족 출신의 사람들과 함께 캐나다인의 일원으로서 생활해나간다. 당연히 그들은 여러 종류의 언어를 혼용하며, 심지어 가족끼리도 여러 가지 언어(타이완과 홍콩의 방언, 중국 표준어, 영어)를 섞어 쓴다. 어쩌면 그들은 언제든지 다

---

22) 김혜준(2011) 참고.

시 국적을 변경할 가능성성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그들이 과연 자신을 어떤 인간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불분명하다. 특히 아직 어린 이복형제는 장차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할지 더더욱 알 수 없다. 이처럼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두루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들과 같은 오늘날의 이런 새로운 이주자들을 콕 집어서 어떤 특정 국가나 종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이런 이주자들을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화인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작품은 다소간 모호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이주자 가정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신분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老兵』(諾拉) 역시 이와 일말의 관계가 있다. 화인 여성으로 추정되는 화자의 서술을 통해 전개되는 이 작품에서 작가가 이와 같은 모습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작가의 의도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 소설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의 다양한 출신 배경과 그들 사이의 결합은 오늘날의 이주자들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문화적 상황에 있으며, 각자의 정체성이 꼭 특정 국가나 종족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대륙 출신인 老李와 그의 딸이 그렇다. 老李는 애초 국민당 군대에 끌려갔다가 나중 인민해방군 소속으로 바뀌고, 한국전에 참전하여 포로가 되었다가 반공포로의 신분으로 석방되어 타이완으로 가며, 마지막에는 사모아로 이주하여 정착한다. 그런데 이처럼 老李 자신의 경력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그런 그의 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교 졸업 후 미군에 입대할 예정이다.

#### 4.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의 의의와 과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은 일종의 소수문학이다. 이런 성격은 영어와 프랑스어 위주의 캐나다 주류문학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차원에서

한어 위주의 중국문학(대륙·타이완·홍콩 문학)에 대해서도 그렇다. 달리 말해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은 주류문학에 충격을 주고, 문학 자체를 바꾸어 놓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문학의 일부로서 세계문학에서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두어 하지만 거론해보자.

캐나다 화인화문소설에서 출발지 중국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존재하더라도 표현할 수 없는 삶의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는 것 자체부터 이미 좋은 시도라고 판단된다. 예컨대 『親情』(葛逸凡), 『開工第一日』(劉慧心), 『賣車大王愛德華史密特先生』(曹小莉), 『楓迴路轉』(劉慧琴) 등 여러 작품에서는 화인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소수종족 이주자들에 대한 동지 의식이라든가 주류사회 사람들과의 우애 및 화인이 오히려 화인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殺人遊戲』(笑言)에서는 소수종족으로서의 화인 자신이 화인과 흑인 사이의 혼혈 자녀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이는 화인이 주류 백인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은 일차적으로는 중국 독자들을 포함하는 화인화문학의 독자들로 하여금 화인화문학이 단순히 ‘중국 이야기’(中國故事)를 전파하고 ‘차이나 드림’(中國夢)을 홍보하는 선전물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한다.<sup>23)</sup>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인(한족)과 화인, 이주지의 주류사회와 소수종족으로서의 화인, 이주지는 물론이고 대륙·타이완·홍콩 등을 포함하는 전 세계 차원에서의 주류사회와 소수자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더욱 적

23) 2016년 11월 베이징에서 第二屆世界華文文學大會(中國海外交流協會·中國世界華文文學學會主辦)가 개최되었다. 개막식 및 기조 강연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인사들과 중국작가협회 고위 인사들(吉狄馬加, 葉辛)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였다. 중국의 ‘민족부흥’이 도래했다는 것과 화문작가의 작품을 통해 ‘중국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중국 이야기’란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세계’란 (사실상) 서양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명단을 참고로 할 때 이 회의에는 200여 명의 대륙 외 지역의 화문작가와 100여명가량의 대륙 학자 및 필자를 포함한 극소수의 외국인 연구자가 참석했다. 김혜준(2017.04.) 참고.

극적인 탐색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는 화인이 처한 상황과 지위에 대해 좀 더 거시적으로 파악하면서 이를 작품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들은 주로 출발지 중국과 이주지 캐나다 및 이 두 지역의 관계 속에 한정해서 화인을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시아를 좀 더 확대해서 전 지구적인 초국가적 이주자 집단이라는 차원에서 화인을 본다면, 즉 국가와 종족을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간 집단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화인을 본다면, 아마도 새로운 차원의 작품을 창작할 수 있지 않을까? 둘째는 기성 작가든 아니면 아마추어 작가든 간에 기존의 언어와 기법에 너무 얹매이지 말고 작가 자신의 새로운 경험, 감수, 관점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는 것이다. 알다시피 프란츠 카프카는 유태계 언어인 이디시어를 구사하는 유태인으로서, 체코 프라하에 살면서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로 작품을 썼다. 달리 말해서 그는 독일에서 독일어로 창작한 독일 사람들(게르만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작품을 쓴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의 작품이 뛰어났던 것은 우선은 그의 깊고 사상과 풍부한 감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가진 또 다른 언어 방식 또한 그의 그러한 사상과 감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따라서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들 역시 이런 점을 참고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 만의 언어 표현을 탐구해야 할 것이다.

내가 보기엔 나와 같은 비한족계/비중국계 학자의 연구 작업과 화인 작가의 화인화문소설 창작은 일종의 공통점 내지 유사점이 있다. 비한족계/비중국계 학자의 경우 중국 학자(한족 학자)에 비해 생활의 경험, 문화의 이해, 독서의 분량, 언어의 숙련 등 많은 면에서 부족하다. 그렇다면 비한족계/비중국계 학자의 작업은 과연 어떤 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일까? 내 생각에 최소한 한 가지는 제시할 수 있을 것 같다. 곧 비한족계/비중국계 학자가 가진 조건에서 비롯되는바 관점과 감각이 중국 학자

(한족 학자)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이다. 만일 이 말이 타당하다면 화인작가의 화인화문문학과 중국문학 또는 거주지의 주류 문학(이 경우에는 캐나다의 영어 및 불어문학)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의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은 기존의 중국문학/중문문학이나 캐나다 문학을 담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을 재생산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加華作協의 작품선에 게재된 단편소설을 보면 작가들은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독자로 중국의 독자를 상정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일부 작품들은 그러한 독자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이국적 풍정을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국적 환상을 조작해내기까지 하는 것 같다. 심지어 『警探理查遜』(張翎)과 같은 어떤 작품은 마치 백인 총잡이와 인디언 추장 딸 사이의 러브 스토리 내지는 정의로운 백인 남성이 무지한 동양 여성을 구원해주는 이야기나 다름없을 정도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는 과연 누구를 독자로 상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라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많은 독자의 호응을 받고 싶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가 전 세계 중문독자(특히 중국의 독자)를 자신의 독자로 상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내가 보기에는 의식적으로 캐나다 화인독자(또는 전체 화인독자)를 일차 대상으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加華作協은 물론이고 캐나다 화인 사회 전체가 화문 교육의 보급과 더불어 화문문학 작품의 보급, 화문문학 독자의 확산, 화인화문문학 작가의 양성, 화인화문문학 발표 지면의 확대에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물론 지금까지 이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추세로 보면 캐나다에서 화인 및 화문의 영향력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孔子學院 등을 통한 대륙의 강력한 지원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공동의 방향성을 가질 때 더욱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캐나다 화인화문 작가들이 단순히 캐나다의 화인 수준에서 머문다든지 또는 중국(대륙)의 외연 확대

시도에 종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이 한족(중국인) 출신의 진정한 캐나다인 내지는 초국가적 이주자의 일원으로서의 화인이라는 점을 의식하면서, 캐나다 화인화문문학을 캐나다문학의 일부 내지는 화인화문문학의 일부로서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sup>24)</sup>

### 【參 考 文 獻】

천하오취안 외 저, 김혜준 외 역,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서울: 지식을 만드는지식, 2016.

김혜준,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경계의 해체 또는 재획정」, 『중국현대문학』 제80집, 서울: 중국현대문학학회, 2017.1, 73-105쪽.

김혜준, 「시노폰 문학, 세계화문문학, 화인화문문학 — 시노폰 문학(Sinophone literature) 주장에 대한 중국 대륙 학계의 긍정과 비판」, 『중국어문논총』 제8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7.4, 329-357쪽.

김혜준, 「화인화문문학(華人華文文學) 연구를 위한 시론」, 『중국어문논총』 제50집, 서울: 중국어문연구회, 2011.9, 77-116쪽.

김두섭, 「중국인과 한국인 이민자들의 소수민족사회 형성과 사회문화적 적응 캐나다 밴쿠버의 사례연구」, 『한국인구학』 제21권 제2호, 한국인구학회, 1998.12, 144-181쪽.

윤영도, 「신자유주의 시대 중국계 이주민의 초국적 사회공간(Transnational Social Space)의 형성과 변천 — 밴쿠버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제68호, 서울: 한국중국현대문학

24) 陳麗芬, 梁麗芳, 青洋 등의 이메일(2017.09.03-05.)에 따르면, 필자의 구두 발표(2017) 이후 加華作協에서는 상기한 필자의 비판에 대해 별도의 토론을 진행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학회, 2014.3, 183-215쪽.

이병인, 「해외 화인(華人)사회의 변화와 ‘국가’, 1840-1949」, 『아시아문화 연구』 제24집,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12, 187-214쪽.

John Meares, *Voyage Made in the years 1788 and 1789, From China to the North West Coast of America*, London: printed at the Logographic Press and sold by Jo Walter, 1790.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華作家作品選一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陳浩泉 主編, 『白雪紅楓: 加華作家作品選二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

陳浩泉 主編, 『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陳浩泉 主編, 『楓華正茂: 加華文學評論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郭媛媛, 「跨界中的“去”與“留”——傳播學視角中的新移民文學」, 『世界華文文學論壇』 2010年3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0.9.25, 54-58頁.

梁麗芳, 「試論嶺南人對加拿大華文文學的起源及形成的貢獻」, 『世界華文文學論壇』 2010年3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0.9.25, 3-8頁.

梁麗芳, 「試論前期加拿大華人文學活動的多重意義: 從閱書報社、征詩、征聯到粵劇、白話劇」, 『華文文學』 2011年6期, 2011.12.20, 汕頭: 汕頭大學, 2011.12.20, 52-60頁.

梁麗芳, 「加拿大華文小說第一波: 港台作家們的開拓角色」, 『華文文學』 2013年3期, 汕頭: 汕頭大學, 2013.06.20, 75-80頁.

盧因, 「文學溫哥華」, 『華文文學』 2006年4期, 汕頭: 汕頭大學, 2006.8.20, 5-7頁.

劉慧琴, 「淺談加拿大華文文學」, 『華文文學』 2006年4期, 汕頭: 汕頭大學, 2006.8.20, 11-13頁.

- 劉紅林，「風景這邊獨好——近三十年加拿大華裔文學綜論」，《華文文學》2014年4期，汕頭：汕頭大學，2014.08.20, 106-110頁。
- 李未醉，「加拿大華僑與華文文學」，《八桂僑刊》2005年1期，南寧：廣西華僑曆史學會，2005.2.28, 17-18頁。
- 李雲川，「從加拿大華文文學看華裔移民文化」，《南京財經大學學報》2009年5期，南京：南京財經大學，2009.10.15, 103-105頁。
- 林楠，「加拿大華文文學概覽」，《華文文學》2006年4期，汕頭：汕頭大學，2006.8.20, 14-20頁。
- 吳金平，「19世紀中國人移民加拿大及其影響」，《中南民族學院學報(人文社會科學版)》第22卷5期，武漢：中南民族學院，2002.10.30, 67-70頁。
- 吳華，「群星璀璨，相映成輝“多倫多小說家群”評介」，《華文文學》2006年4期，汕頭：汕頭大學，2006.8.20, 27-33頁。
- 吳華，「“流動”的凝視——加拿大華文書寫中的身份建構」，《中國文化研究》2014年秋之卷，北京：北京語言大學，2014.08.28, 129-138頁。
- 王龍，「論北美華文文學的區域特質」，《世界華文文學論壇》1998年4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1998.11.15, 61-63頁。
- 王奕軒，「從統計數據看當代加拿大華僑華人的人口特征」，《華僑華人歷史研究》2014年4期，北京：中國華僑華人歷史研究所，2014.12.1, 37-48頁。
- 趙慶慶，「加拿大華人文學概貌及其在中國的接受」，《世界華文文學論壇》2011年2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2011.06.25, 33-39頁。
- 趙慶慶，「對加拿大“豬仔屋”和先僑壁詩的歷史解讀」，《世界華文文學論壇》2014年3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2014.09.25, 20-25頁。
- 池雷鳴，「“加拿大新移民華文小說”的界定、研究現狀及局限」，《世界華文文學論壇》2014年3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2014.09.25, 32-36頁。
- 池雷鳴，「歷史的表述和表述的歷史——論加拿大新移民華文小說的加華史書寫」，《世界華文文學論壇》2015年3期，南京：江蘇省社會科學院，

2015.09.25, 18-23頁.

陳啓文, 「在碰撞與融合中的海外華文文學(編輯前言)」, 『文學界(專輯版)』2009年6期, 長沙: 湖南省作家協會, 2009.06.15, 4頁.

陳瑞琳, 「離散”後的“超越”——論北美新移民作家的文化心態」, 『華文文學』2007年5期, 汕頭: 汕頭大學, 2007.10.20, 35-39頁.

陳浩泉, 「加拿大華文傳媒與加華文學」, 『世界華文文學論壇』2010年2期, 南京: 江蘇省社會科學院, 2010.06.25, 11-15頁.

向憶秋, 「中國內地“北美華文文學研究”的歷史進程和新突破」, 『佛山科學技術學院學報(社會科學版)』第34卷2期, 佛山: 佛山科學技術學院, 2016.03.30, 44-51頁.

胡賢林, 「範式轉換還是學科重構——關於華文文學與華人文學的思考」, 『華文文學』2007年5期, 汕頭: 汕頭大學, 2007.10.20, 44-52, 61頁.

【Abstract】

# Capturing a New Form of Transnational Migration: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Short Stories from Chinese Canadian Writers' Association

KIM Hyejoon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7, Chinese Canadian Writers' Association (CCWA) has bee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Canadian's Chinese-language literature through various activities such as publishing anthologies, despite economic pressures and other difficulties.

CCWA's collections do not carry a large quantity of short stories. Despite their rather small number, themes and styles of the stories vary greatly. The variety derives from the writers' diverse background, which include mainland China, Taiwan, Hong Kong, the Philippines, Singapore, Vietnam, and others, as well as due to their dissimilar writing career and life trajectories. In addition, the variety reflects Canada's inclusive policies and social atmosphere toward ethnic minorities.

Most of the CCWA writers are first generation immigrants, and many of the short stories directly or indirectly reflect the writers'

experiences upon their arrival in the new area. Most stories are set in Canada, and in many cases, they engage with the lives of immigrants. In particular, many of them take a closer look at the phenomena of “太空人家族”, or the astronaut families. The stories tend to revolve around conflicts and within these families, breakdowns, and the question of women’s self-reliance and independence.

CCWA short stories reveal particularities of Chinese Canadian’s Chinese-language literature. For example, many of these stories feature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Canadians into “true” Canadians, which reflects how, unlike overseas Chinese in other areas, Chinese Canadians have become relatively well-adapted to the hosting society. This theme of transformation is especially salient among writers that immigrated to areas with less radical differences from their places of departure, or those who have already spent substantial amount of time in Canada.

Most importantly, CCWA short stories capture a new form of transnational migration. Unlike past migrants who had little or no hope of returning to their origin, many of the new migrants mobilize more diverse resources while constantly moving between their points of departure and destination, as well as numerous stops in between. Many of the CCWA short stories portray these migrants and their nomadic mindset, where they consider nationality as a means rather than an end in itself.

CCWA short stories clearly show that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is a minor literature vis-à-vis the English and French — dominant Canadian mainstream literature. At the same time, it is a minor literature vis-à-vis Chinese language — oriented Chinese literature, such as those of mainland China, Taiwan, and Hong

Kong. Given its positionality,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has the potential to challenge mainstream literature and even redefine the field of literature. Above all things, it may shed a different light on the field of world literature as part of the newly shaping transnational migrant literature.

Key words: CCWA, Chinese Canadian Writers' Association, Chinese Canadian's Chinese-language literature, overseas Chinese-language literature, transnational migration

접수일: 6월 15일, 심사기간: 6월 25일~7월 15일, 게재 확정일: 7월 23일